논어 17편 양화 24장 · 원문·풀이

子貢曰：「君子亦有惡乎？」子曰：「有惡，惡稱人之惡者，惡居下流而訕上者，惡勇而無禮者，惡果敢而窒者。」曰：「賜也亦有惡乎？」「惡徼以爲知者，惡不孫以爲勇者，惡訐以爲直者。」

독음 · 자공왈 군자역유오호 자왈 유오 오칭인지악자 오거하류이산상자 오용이무례자 오과감이질자 왈 사야역유오호 오교이위지자 오불손이위용자 오알이위직자

쉬운 풀이(요약) · 남의 악을 떠들고 위를 헐뜯으며 예 없이 용감하거나 막힌 채 과감한 태도를 경계했다. 자공도 가로챈 앎, 불손한 용기, 남의 비밀을 들추는 곧음을 싫어한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

亦 또 역 / 有 있을 유 / 惡 나쁠 악 악 / 乎 어조사 호

稱 저울질할 칭 칭 / 人 사람 인 / 之 갈 지 / 者 놈 자

居 살 거 거 / 下 아래 하 하 / 流 흐를 류 류 / 而 말이을 이

訕 헐뜯을 산 산 / 上 윗 상 / 勇 날랠 용 용 / 無 없을 무 무

禮 예도 례 례 / 果 실과 과 과 / 敢 감히 감 감 / 窒 막을 질 질

賜 줄 사 사 / 也 어조사 야 / 徼 돌아다닐 요 요 / 以 써 이 이

爲 할 위 / 知 알 지 / 不 아닐 불 / 孫 손자 손 손

訐 들추어 낼 알 알 / 直 곧을 직 직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